

小兒腹痛에 關한 文獻의 考察

李東炫* 趙鍾寬** 丁奎萬***

I. 緒 論

小兒는 出生에서 成人에 이르는 生成發育의 過程에 있기 때문에 解剖生理的 特性이 成人과 같지 않다.

또 病理와 免疫 및 發病도 成人과는 差異가 있다. 疾病의 種類에 있어서 古代醫家들은 痧·痘·驚·疳을 兒科四大要症이라 하였다. 近來에는 疾病의 樣狀도 옛날과는 달라져 天花(痘)나 麻疹(痧) 같은 傳染病은 많이 減少되었고, 生活環境과 營養이 좋아짐에 따라 疳症과 驚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¹²⁾

現在 小兒科 疾患의 大部分은 外感大溼과 內傷飲食으로 인한 疾患으로 肺·脾 二臟과 關係가 깊다. 특히 腹痛은 消化器의 代表的인 症狀으로 比較的 多發하나 原因과 症候가 多樣하기 때문에 檢診에는 어려움이 많다.¹²⁾

內經에서는 腹痛의 一般的인 原因으로 첫째는 「歲土太過雨濕行 腎水受邪 民病腹痛」한 것이고 둘째는 「歲木不及 燥及大行 民病中清 少腹痛」이며 세째는 「小腸病 小腹痛... 膀胱病者 小腹偏腫而痛」이라 하였다. 또한 腹痛의 種類에 있어서도 寒腹痛·熱腹痛·血結腹痛·水結腹痛은 이미 提及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腹痛은 內經이 著述된 때부터 重要的 疾患으로 認識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²²⁾

最近 여러 研究에서 살펴 보더라도 腹痛은 거의 모든 小兒年齡에서 廣範圍하게 나타나고 來院 患者의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⁶⁾⁷⁾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兒科에서 重視

하는 小兒腹痛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究明해 보는 것이 意義가 있다고 생각하여 文獻的 考察을 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內經²²⁾

寒腹痛症: 寒氣가 小腸에 入하면 腹痛과 泄瀉가 생긴다.

• 寒氣가 腸胃의 사이와 胸膜의 下에 있으면 血이 散하지 못하여 小絡이 당기고 痛症이 생긴다.

• 邪가 脾胃에 있고 陽氣가 不足하며 陰氣가 有餘하면 寒이 直中하여 腸鳴腹痛이 생긴다.

熱腹痛症: 火郁이 생기면 腹中이 暴痛한다

• 熱氣가 小腸에 留하면 腸中이 痛하고 發熱, 口渴하고 大便이 乾燥하며 그 때문에 痛症이 생기며 便不通한다.

血結腹痛症: 厥氣가 陰股에 入하면 寒氣가 少腹에 미치고 血은 下에서 相引함으로 腹痛이 있고 陰股가 당긴다.

水結腹痛症: 膀胱病은 小腹이 偏腫하고 痛症이 있고, 손으로 만지면 小便이 나오려는 듯해도 나오지 않는다.

2. 諸病源候論¹⁵⁾

小兒腹痛은 冷熱不調로 인한 것이 많다. 冷熱의 氣가 臟腑를 相擊함으로 痛이 생긴다. 熱로 痛하는 때는 面赤하거나 壯熱·四肢煩·手足心熱하고, 冷으로 痛하면 面色이 靑하거나 白하고 甚하면 黑色으로 變한다. 唇口·爪甲은

* 大邱·李東炫 韓醫院長·慶熙大學校 大學院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모두 青色을 띤다.

3. 太平聖惠方¹⁹⁾

小兒腹痛은 冷熱不調로 인한 것이 많다. 冷熱의 氣가 臟腑를 相擊함으로 痛이 생긴다. 熱로 痛하는 때는 面赤하거나 壯熱·四肢煩·手足心熱하고 冷으로 痛하면 面色이 靑하거나 白하고 甚하면 黑色으로 變한다. 唇口·爪甲은 모두 青色을 띤다. 腹痛의 種類는 冷熱不調·傷冷腹痛· 갑자기 下하면서 腹痛이 不止한 것· 腹痛이 甚하여 참을 수 없는 것 등으로 나누어진다.

4. 和劑局方²⁰⁾

·小兒가 脾胃不和하면 嘔逆·惡心하고, 冷熱不調하면 減食·泄瀉·腹痛·腸鳴·少力嗜臥한다.

·小兒가 脾胃不和하면 增寒壯熱·腹痛·嘔吐하고 乳食을 먹지 못한다.

·小兒에서 冷痢, 赤白痢가 있으면 腹通·不欲飲食·羸弱·四肢不和한다.

·小兒가 臥食無度하고 冷熱不調하면 赤白痢가 생기고 後重腹痛·煩渴引飲·小便不利 便閉頻數하며 食減少力한다.

·冷熱不調나 乳哺失節하면 泄瀉不止 或赤白下痢가 있고 腹痛後重하며, 腸胃가 虛滑하면 便數·減食困倦한다.

5. 小兒藥證直訣²⁴⁾

腹痛이 있으면서 體瘦·面色恍白·目無睛光·口中氣冷·不思飲食·或嘔利最口한 것은 脾土가 虛하여 寒水가 侮한 때문이다. 益黃散·調中丸을 쓴다. 口中氣溫·面色黃白·目無睛光하거나 多睡惡食·大便酸臭한 것은 積痛이다. 消積丸을 쓰고 甚하면 白餅子로 下한 後 白朮散으로 調補胃氣한다.

·吐痰沫하거나 吐清水하고 面恍白·心腹痛而有時者는 蟲痛이다. 糞과 類似하나 目不斜·

手不搖하고 安虫散을 쓴다.

6. 聖濟總錄²⁵⁾

藏府가 內虛한데 寒氣가 客入하면 正氣와 相擊하므로 痛한다. 또 冷積이 不散하면 乍間乍甚하고, 久腹痛者가 다시 寒을 만나면 腸鳴下利한다. 腹은 至陰의 所居인데 陰邪가 客搏하여 생긴다.

7. 儒門事親²³⁾

歲木太過로 風氣流行하면 胃脘當心而痛한다. 胃脘有寒으로 인한 痛症임으로 溫補하는 것이 마땅하다. 普濟方²⁶⁾

8. 普濟方²⁶⁾

小兒心腹疼은 證候가 多樣하다. 蟲動하여 疼하면 얼굴이 五色으로 變하고 清水나 涎沫을 吐한다. 或 눈을 감고 울거나 누워서 撲手을 친다. 心神은 悶亂하고 沈沈嚙嚙한다. 飲食不節하거나 冷硬·肥膩·甘甜을 過食하면 消化되지 않고 臟에 停滯된다. 이때 冷氣와 接觸하면 疼痛한다. 또 氣痛이라는 것도 있다. 或 怒한 때에 飲食을 먹거나 冷氣에 傷風하면 發한다. 또 體虛臟寒하여 作疼하기도 하며 脈은 弦緊하다. 勞瘵屍蟲作痛은 食하여도 飽하지 않고 身形이 羸瘦하며 五心煩熱·骨蒸潮熱이 있다.

9. 醫方類聚²⁾

積痛은 口中氣溫·面黃白하고 目無精光하며 或白睛이 많고 多睡한다. 또 畏食·大便酸臭한다. 蟲痛은 面白眇·心腹痛·吐沫清水한다. 小兒는 本來 性怯한 者가 많고 積痛·食痛·虛痛은 大同小異하다. 오직 虫痛은 口淡·沫食·自出할 뿐이다.

10. 丹溪心法附餘²⁷⁾

·小兒腹痛은 飲食으로 생기는 것이 많다. 夏月에 吐瀉·腹痛·吐乳하면 調脾한다. 氣滯不勻·宿食不消하면 心腹刺痛·嘔吐惡

心한다. 調脾胃하면 進飲食한다.

• 小兒가 갑자기 惡毒을 받으면 心腹刺痛한다. 腹大而滿하고 脉緊細而微者와 緊大而浮하면 死한다.

11. 幼科發揮

小兒腸痛은 腰屈하고 空啼無淚한다. 이것을 盤腸痛이라 하며 內釣와 類似하나 不直視한다.

12. 嬰童百問⁹⁾

무릇 腹痛은 邪氣와 正氣가 서로 攻하고 臟氣를 相擊하여 일어난다. 挾熱而痛者는 面赤·壯熱·四肢煩·手足心熱하고, 挾冷而痛者는 面色이 白하거나 靑하며 手足冷하다. 冷甚하고 變證이 되면 面黯하고 脣口가 俱黑하고 爪甲이 靑하다. 盤腸氣는 痛하면 曲腰 乾啼·額上有汗한다. 이것은 小腸에 冷氣가 搏한 때문이다. 또 口閉脚冷 上脣乾하며 이러한 原因은 出生後 洗浴을 늦게 했거나 感受風冷한 때문이다. 蛔蟲痛은 蛔蟲로 因한 것이다. 蛔蟲은 九蟲 중의 하나로 길이가 一尺이고 五六寸만한 것도 있다. 臟腑가 虛弱하거나 甘肥食하면 動한다. 動하면 腹中痛하고 덩어리가 모이며 往來上下하고 痛이 止하면 攻心痛·口喜吐涎하거나 清水를 啖한다.

13. 保嬰撮要¹⁴⁾

盤腸氣는 肝經風邪가 搏한 때문이다. 肝腎은 下에 있으므로 痛하면 曲腰한다. 乾啼는 風이 液을 燥하게 한 것이고 額上有汗은 風木이 心火를 助한 때문이다. 口閉足冷者는 脾氣不營한 것이고, 下利靑糞者는 肝木乘脾한 때문이다.

14. 萬病回春⁸⁾

腹痛脈은 關이 緊小·急速하거나 動而弦한다. 甚하면 沈伏弦實한다. 腹痛脈은 沈細하다. 腹痛은 일반적으로 寒·熱·食·血·濕·痰·蟲·虛·實 9種으로 나눈다.

15. 六科準繩

무릇 腹痛은 邪氣와 正氣가 攻하고 臟氣가 相擊하여 作한 것이 많다. 薛氏曰 “口中氣冷·不思飲食은 脾土虛寒이다. 口中氣溫·大便酸臭는 積痛이다. 面赤壯熱·或手足並은 實熱이며, 瀉한다. 面黃微熱 或手足並溫은 虛熱이다. 作渴飲湯은 胃氣虛熱이다. 痛이 兩脇을 連한 것은 肝木乘脾한 것이다. 右腹이 눌리는 것처럼 아픈 것은 脾氣下陷한 것이다. 手足指冷 하거나 呃逆·泄瀉한 것은 寒水侮土이다. 藥을 먹으면 滯하고 腹痛하며 按之不痛한 것은 脾氣復傷이다.” 하였다. 婁氏는 “曲腰·乾哭無淚者는 盤腸內釣痛이다. 面皸白·不思飲食은 胃冷痛이다. 面赤·脣焦·便黃은 熱痛이다. 面黃白·大便醋臭는 積痛이다. 口淡·沫自出은 蟲痛이다.” 하였다.

16. 東醫寶鑑⁵⁾

曲腰·乾啼無淚·面靑白·唇黑·肢冷 或大便靑·不實者는 盤腸內吊이다. 小兒腹痛은 乳食所傷이 많다. 面靑白·身冷·水瀉는 冷痛이다. 積痛·食痛·虛痛·蟲痛은 大同小異하나 蟲痛은 小兒에서 많다. 證은 心腹痛·叫哭·倒身撲手·嘔吐清水 涎沫·面色靑黃·時作時止·口唇紫黑한 것은 蛔厥한 것이다.

17. 景岳全書²¹⁾

腹脹·腹痛은 食積으로 因한 것이 많고 或寒涼傷脾하다. … 治痛治脹者는 마땅이 健脾煖胃를 主로 하여야 한다. 小兒肚腹 或脹 或痛은 비록 積滯로 因한 것이 많지만 脾胃不虛하면 運化가 되는데 어찌 作脹하겠는가?

18. 醫宗金鑑¹⁶⁾

小兒腹痛은 四種이 있다. 寒痛·食痛·蟲痛·停食感寒痛이다. 寒則溫中·食則消導·蟲則安虫·停食感寒則消散한다. 食痛은 傷食으로 因한 心胃痛이다. 食入하면 痛하고 喜涼飲한다.

惡食·腹滿·吐酸·便秘한다. 寒痛은 中氣虛弱한데 風冷이 乘하여 生한다. 則脾經受寒함으로 不時腹痛한다. 尿白·爪甲白·面多青·喜飲熱或腹滿下利한다. 虫痛은 腹中虫動不安하여 腹中作痛한다. 面色乍赤乍青乍白하고 痛은 時作時止하고 時吐清水한다. 內食外寒 腹痛은 外感寒邪後 食寒凝結하여 發熱·惡寒兼腹痛惡食·嘔吐啼叫不已한다.

19. 幼幼集成²⁸⁾

挾冷痛者는 面色或青或白하고 冷痛者는 面色或青或白하다. 冷甚하면 面色暗淡, 唇口爪甲皆青하다. 이것은 脾氣虛寒한 때문이다. 挾熱痛者는 面赤壯熱·四肢煩·手足心熱하다. 食積痛者는 口中氣溫·面黃唇白·目無精光 或白睛多·多眠惡食·大便酸臭한다. 虫痛者는 面白唇紅·六脈洪大·心腹疼痛·口中涎沫·清水出·腹內結聚한다.

20. 濟衆新編¹⁾

腹痛者가 身熱·口渴·便秘尿赤·腹熱·暴痛暴止·積熱하면 黃芩芍藥湯은 쓴다. 面青白·肢逆冷 甚則 吐瀉臟寒한데는 理中湯이 좋다. 乳食所傷하여 痛하면 乳食丸을 用한다. 蟲痛小兒는 口出涎沫·無時肩背痛하고 食則加痛·唇紫黑한다. 盤腸痛者는 寒氣가 小腸에 鬱滯되어 臍腹이 刺痛한 것이다. 症狀은 曲腰·乾啼·額汗한다.

21. 小兒醫方⁴⁾

腹痛은 흔히 勞役·食傷으로 因한다. 中氣가 虛하면 外邪가 入하여 作痛한다. 누르면 아픈 것은 實, 누를수록 더 아픈 것은 積, 몹시 눌러도 아프지 않는 것은 虛이다. 冷腹痛은 綿綿하게 痛하고 增減이 없으며 脈이 沈遲하다. 熱腹痛은 時止時作하며 痛處가 極熱하다. 瘀血腹痛은 墮撲受傷으로 因한 것이다. 食積痛은 瀉하면 痛減한다. 痰飲痛은 腹中이 당기고 腸下에 水聲이 있고 瀉不利한다.

22. 醫學入門²⁰⁾

腹痛하면서 面黃한 것은 積이다. 口中氣溫·多睡畏食·大便臭한다. 感寒作痛者는 面白或青·四肢冷甚하다. 感熱作痛者는 面赤壯熱·四肢煩熱·口中氣熱한다. 蟲痛은 心腹俱痛·面皓白·口中吐沫한다.

23. 嬰童類萃¹⁸⁾

心腹疼痛의 症은 한가지가 아니다. 積·聚·蟲·食·冷·熱症이 있다.

24. 中醫兒科學¹²⁾

腸絞痛은 小兒의 機能性 腹痛의 일종에 비교된다. 突發性 腹痛이 特徵이다. 古代文獻에 盤腸氣痛·盤腸內吊痛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盤腸은 臍腹內에 腸이 結聚한 것이다. 主要原因은 腹部中寒으로 寒邪가 腸間에 모이거나 或 乳食凝滯로 氣機不 통한 所致이다. 治療는 溫中散寒·行氣導滯하여야 한다.

25. 中醫兒科臨床手冊¹³⁾

腹痛은 大多數 感受寒邪·乳食積滯·諸虫感染에 依해 생긴다.

III. 總括 및 考察

腹은 많은 臟器를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富翁과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腹의 意味는 富와 同一하다.¹¹⁾ 腹의 境界는 肋骨以下 前陰以上의 軟處로 臍以上은 大腹·臍以下는 小腹 그리고 臍部는 臍腹이라 한다. 經絡上 腹은 諸陰之會이고 大腹은 太陰에 臍腹은 少陰에 小腹은 厥陰에 各各屬한다.¹¹⁾ 腹部가 陰이기 때문에 生理的으로는 喜溫惡寒하고 病症도 寒症이 많다. <內經>에는 “經脈流行不止하고 環周不休하는데 寒氣入經而稽遲하며 泣而不行하여 客於脈外하면 血少하고, 客於脈中하면 氣不通하므로 卒然而痛한다.” 하여 主로 寒氣에 依하여 腹痛이 誘發됨을 말하였다.³⁾ 또 寒腹痛外에도 熱腹痛·血結腹痛·水結腹痛은 言及이 있고²²⁾ 食滯腹痛·氣郁腹

痛은 後世醫家가 補充하였다. 成人에 있어서 腹痛의 原因으로는 大腹에는 食積外邪·臍腹에는 積熱痰火·小腹에는 瘀血·痰·尿澀으로 因한 것이 많으며, 小兒의 경우는 成人과는 많은 差異가 있다. 巢¹⁵⁾는 冷熱不調로 冷熱氣가 臟腑를 相擊하여 痛이 생긴다고 하였다. 腹痛의 分類도 熱과 冷으로 나누었다. 王¹⁹⁾은 巢의 理論을 따랐으나 治療에 있어서 傷冷腹痛·冷熱不調腹痛·卒壯下腹痛·腹痛不忍 등으로 나누었다.

陳²⁰⁾은 腹痛은 病因을 여러가지로 보았다. 冷熱不調·脾胃不和·乳食失節·臥食無度 및 冷痢·赤白痢로 因한 경우도 言及하였는데 脾胃不和·腸胃虛滑 등 消化器臟腑의 不調를 主因으로 보았다. 錢²⁴⁾은 脾土虛而寒水所侮·積滯·虫이 原因이 되고 治法은 各各 調中·消積·調補脾胃한다. 趙²⁵⁾는 오직 寒邪에 의해 腹痛이 生한다고 하며 除冷溫脾를 主로 하였다. 張²³⁾도 歲木太過·胃脘有寒을 主因으로 보았다. 朱²⁶⁾는 蟲動·飲食不節·氣痛 勞瘵屍蟲으로 因한 것으로 分類하였다. 朱²⁷⁾는 腹痛은

飲食傷으로 因한 것이 많고 또 氣滯나 惡毒으로 發하는 것도 있고, 대체로 調脾胃하는 治法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萬¹⁰⁾은 盤腸痛을 말하였다. 症狀은 空啼無淚하고 內釣와 類似하나 不直視한다고 하였다. 魯⁹⁾는 熱痛·寒痛·盤腸氣痛과 蛔虫痛으로 分類하고 蛔虫은 臟腑虛弱으로 생긴다고 하였다. 李²⁰⁾는 積·寒·熱·蟲이 病因이 된다고 하였고 龔⁸⁾은 寒·熱·食·血·濕·痰·虛·實·蟲 등 9種으로 分類하였다. 許⁵⁾는 小兒腹痛은 乳食所傷이 많다고 하였고 張²¹⁾은 食積과 或寒涼으로 因한 것이 많으므로 健脾緩胃를 主로 한다 하였다.

吳¹⁶⁾는 寒則溫中·食則消導·虫則安虫·停食感寒則消散하는 治法을 使用하였다. 丁⁴⁾은 勞役과 食傷이 主因이 되고 冷·熱·瘀血·食積·痰食痛으로 나누었다. 또 王¹⁸⁾은 積·聚·蟲·食·冷熱로 나누었고 中醫兒科學¹²⁾에서는 腸絞痛이 盤腸氣痛과 같은 것이며 寒邪·乳食滯가 原因이 된다고 하였으며 中醫兒科臨床手冊¹³⁾에서는 寒邪·乳食積滯·諸虫感染이 主因이다 하였다.

以上の 考察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冊名	主因	分類	治法
黃帝內經	寒氣客於脈中	寒·熱·血結·水結	
諸病源候論	冷熱不調	冷·熱	
太平聖惠方	冷熱不調	傷冷·冷熱不調· 卒壯下·腹痛不忍	
和劑局方	脾胃不和·冷熱· 不調·腸胃虛滑		
小兒藥證直訣	脾虛·積·虫	脾虛·積滯·虫	調中·消積·調補脾胃
聖濟總錄	藏府內虛入寒氣	虛·冷積·久腹痛	除冷溫脾
儒門事親	歲木太過·寒		溫補
普濟方	虫·飲食不節	虫動·飲食不節·氣· 勞瘵屍虫	

冊名	主因	分類	治法
醫方類聚	積·虫	積·食·虛·虫	
丹溪心法附餘	飲食·氣滯·惡毒		調脾胃
幼科發揮		盤腸痛	
嬰童百問	邪正交攻	寒·熱·盤腸氣·蛔虫	
保嬰撮要	肝經風邪	盤腸氣痛	
醫學入門	積·寒·熱·虫	積·寒·熱·虫·	
萬病回春		寒·熱·食·血·濕· 痰·蟲·虛·實	
六科準繩	邪正交攻	脾土虛寒·積·實熱·虛· 熱·肝木乘脾·脾氣下陷· 寒水侮土·盤腸氣·虫	
東醫寶鑑	乳食所傷	盤腸氣·冷·積·食· 虛·虫	
景岳全書	食積	食積·寒涼傷脾	健脾煖胃
醫宗金鑑		寒·食·虫·停食感寒	溫中·消導·安虫·消散
幼幼集成		冷·脾氣虛寒·熱·食積· 虫	
濟衆新編		熱·寒·乳食傷·虫·盤腸氣	
小兒醫方	勞役·食傷	實·積·虛·冷·熱· 瘀血·痰飲	
嬰童類萃		積·聚·蟲·食·冷·熱	
中醫兒科學	腹部中寒·乳食滯	腸絞痛	溫中散寒·行氣導滯
中醫兒科臨	寒邪·乳食滯·		
床手冊	諸中感染		

IV. 結 論

小兒 腹痛에 關해 文獻을 考察한 結果 다 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腹痛의 主因은 冷熱不調·乳食滯·虫·邪正交攻 등 이었다.
2. 腹痛의 種類로는 寒·熱·虛·實·食積·虫腹痛 및 盤腸氣痛으로 大別할 수 있다.
3. 腹痛의 治法은 溫中·消導·健脾·安虫하

는 治療를 主로 하였다.

4. 小兒腹痛과 成人腹痛과 다른점은 虫腹痛이 比較的 많고, 盤腸氣痛이 있다는 것이다. 虫腹痛의 原因은 蛔虫이 臟腑가 虛弱하거나 甘肥食하여 動한 때문이고, 心腹痛 口中涎沫·面色青黃·口唇紫黑·時作時止하는 症狀이 있다. 盤腸氣痛은 寒氣가 小腸에 鬱滯되어 臍腹이 刺痛한 것으로 曲腰, 乾嘔, 額汗의 症狀이 나타난다.

參 考 文 獻

1. 康命吉：濟衆新編，서울，杏林出版社，p.288,1975.
2. 世宗命撰：醫方類聚，서울，金剛出版社，pp.8590~8593, 1981.
3. 丁奎萬：東醫小兒科學，서울，행림출판사，pp.323~324, 1985.
4. 丁若鏞：小兒科秘方，서울，행림출판사，p.141,1979.
5. 許 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p.651, 1983.
6. 金德坤外：韓方小兒科 外來患者에 對한 臨床統計的 考察，서울，대한 한의과학회誌，卷6，제2호，1985.
7. 崔翔旭外：小兒科 外來患者의 主訴에 關한 觀察，서울，소아과학회 卷26，제9호，1983.
8. 龔延賢：萬病回春，서울，杏林書院，pp.45~46, 1975.
9. 魯伯嗣：嬰童百問，醫部全錄，서울，成輔社，第十冊，p.830, 1976.
10. 萬 全：幼科發揮，醫部全錄，서울，成輔社，第十冊，p.830, 1976.
11. 謝 觀：中國醫學大辭典，서울，金泳出版社，pp.3605~3606, 1976.
12. 上海中醫學院：中醫兒科學，香港，商務印書館，p.1, p.40, pp.93~96, 1981.
13. 上海中醫學院附屬曙光醫院：中醫兒科臨床手冊，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15, 1980.
14. 薛 鎧：保嬰撮要，醫部全錄，서울，成輔社，第十冊，p.831, 1976.
15. 巢元方：巢氏諸病源候總論，台中，昭人出版社，卷四十七，p.15.
16. 吳 謙：醫宗金鑑，北京，人民衛生出版社，第三分冊，pp.133~135, 1980.
17. 王肯堂：六科準繩，서울，東明社，pp.630~631, 1975.
18. 王大綸：嬰童類萃，北京 人民衛生出版社，pp.176~177, 1984.
19. 王懷隱：太平聖惠方，서울，翰成社，pp.2641~2642, 1979.
20. 李 梴：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p.150, 1984.
21. 張分賓：景岳全書，서울，杏林出版社，p.565, 1975.
22. 張隱庵·馬元臺註：黃帝內經，서울，成輔社，素問，p.555, p.678, pp.278~280. 靈樞，p.41, p.182, p.184, 1975.
23. 張從正：儒門事親，台北，旋風出版社，券六一五，1978.
24. 錢 乙：小兒藥證直訣，醫部全錄，서울，成輔社，第十冊，p.829, 1976.
25. 趙 佶：聖濟總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上冊，p.1049, 1982.
26. 朱 橐：普濟方，서울，翰成社，pp.878~882, 1981.
27.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下 p.775, p.780, p.788, 1982.
28. 陳後正：幼幼集成，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164, 1978.
29. 陳念祖：和劑局方，台北，施風出版社 券十 p.6, pp.11~14, 1975.